

# 남자 배구, 도쿄행 '대륙별 예선 출전권' 만다

아시아선수권 참가 위해 출국  
16년 만에 우승 목표 총력전  
8위 안에 들면 올림픽 예선 나가  
임도현 감독 "선수들 부상 없고  
컨디션 좋아 정상에 도전"

2020년 도쿄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남자배구 대표팀이 2019 아시아 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1일 새벽 이란 테헤란으로 떠난다.

지난달 15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 훈련해왔던 대표팀은 아시아 선수권 8위 안에 들어야 내년 1월 열리는 도쿄올림픽 대륙별 예선 출전권을 얻는다.

임도현 대표팀 감독은 올림픽 대륙별 예선 전초전인 이번 아시아선수권에서 '우승'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한국은 역대 아시아선수권에서 2003년 대회 우승 이후 정상에 오르지 못했고, 직전인 2017년 대회에선 3위를 차지했다.



남자배구 국가대표팀 임도현(왼쪽) 감독과 정지석이 지난 7월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대륙별 예선전 출전 각오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아시아선수권에서 한국은 파키스탄, 쿠웨이트, 인도네시아와 같은 D조에 편성됐고, 예선 4개 조 1, 2위가 8강 플레이오프에 오른다.

한국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세계예선에

참가했던 선수 중 베테랑 세터 한선수(대한항공), 라이트 문성민(현대캐피탈), 박철우, 센터 지태환(이상 삼성화재)을 세터 광명우, 라이트 조재성(이상 OK저축은행), 라이트 임동혁, 센터 진성태(이상

대한항공)로 교체했다.

하지만 센터 신영석, 최민호(이상 현대캐피탈), 레프트 정지석, 광석(이상 대한항공), 나경복(우리카드), 세터 황택의(KB손해보험)는 여전히 대표팀의 주축으로 뛰고 있다.

한국은 예선을 통과하면 B조의 일본, 대만과 4강 진출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우승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시아 최강 이란과 중국, 호주 등의 벽을 넘어야 한다.

임도현 감독은 "이번 아시아선수권 목표를 우승으로 정했다"면서 "부상 선수가 없고,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내년 1월 올림픽 예선을 대비해 준비한 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표팀은 소집 기간 프로팀과 7차례 연습경기로 선수들의 실전 경기력을 끌어올렸다.

임 감독은 "연습 파트너 역할을 해준 프로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외국인 선수들도 연습경기에 뛰었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국 탁구, 올림픽 메달 가능성 타진 '실전 모의고사'

인도 아시아선수권 15일 개막  
남자복식 이상수·정영식  
혼합복식 조대성·신유빈에 기대  
2013년 이후 끊긴 금맥 이을지 관심

탁구 남녀 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의 전초전인 제24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타진한다.

김택수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과 유남규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대표팀은 12일 오전 아시아선수권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로 출국한다.

15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올해 아시아 선수권에서는 남녀 단식과 남녀 복식, 혼합복식, 남녀 단체전 등 총 7개 종목에서 우승을 다툰다.

한국은 남자 선수로 이상수, 안재현(이상 삼성생명), 정영식(국군체육부대), 장우진



올해 호주오픈 남자복식 우승을 합작한 이상수(왼쪽)와 정영식. 연합뉴스

(미래에셋대우), 김민혁(한국수자원공사), 조대성(대광고) 6명이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팀은 서효원(한국마사회), 전지희, 양하은(이상 포스코에너지), 유은총(미래에셋대우), 이은혜(대한항공), 신유빈(수원 청명중) 6명이 출전한다.

아시아선수권은 2년마다 개최되는데 올해 대회에서는 2013년 부산 대회 이후 끊긴



올해 체코오픈 혼합복식 우승 후 셀카를 찍는 조대성(오른쪽)과 신유빈. 연합뉴스

금맥을 이을지가 관심거리다. 금맥을 이을 한국의 전략 종목은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이다.

남자복식에선 올해 호주오픈에서 우승을 합작한 이상수-정영식 콤비가 우승을 노리고 '탁구 천재' 듀오인 조대성-신유빈 조도 올해 체코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아시아선수권에서 '녹색 테이블 반란'을 꿈꾸고 있다. 연합뉴스

라건아, 농구월드컵 '펼 펼'  
득점·리바운드 중간순위 1위 올라  
한국은 1승 올리고 26위로 경기 마쳐

한국 남자 농구 대표팀 라건아(30·현대모비스)가 2019 국제농구연맹(FIBA) 농구 월드컵 득점·리바운드 중간순위 1위에 올랐다.

라건아는 2라운드와 17~32위 순위 결정전 경기가 모두 끝난 10일 오전 FIBA가 발표한 득점 순위에서 23.0점의 평균 득점으로 전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난 8일 코트디부아르전에서 40분간 코트를 누비며 26점 16리바운드로 맹활약해 한국의 대회 첫 승을 이끌었다.

2위에는 뉴질랜드의 코리 웨스터(22.8점)가 올랐고, 3위는 호주의 패티 밀스(21.8점)에게 돌아갔다.

리바운드에서도 라건아는 평균 12.8개를 기록해 이란의 하메드 하다디(10.8개)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선두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 편집=신재명 기자

국방일보 창간 55주년·임정 100주년·청산리전투 승전 99주년 특별기획

## 독립군 전설 김작진

독 후 감 공 모 합 니 다

본지 연재물 '독립군의 전설 김작진' 읽고 얻은 모티브로 감상문을 보내주세요

응모대상 전 국민 (국군 장병 포함)  
응모기간 2019년 8월 16일(금) - 9월 17일(화)  
작품규격 공백 포함 2000자 이내의 한글문서(HWP) ※ 용모 시 이름, 소속, 계급, 연락처, 주소 필수  
접 수 처 김작진 장군 기념사업회 홈페이지 [www.kimjwain.org](http://www.kimjwain.org)  
당선작 발표 2019.10.4.(금) | 개별통보 및 국방일보 보도  
시상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8일(금) | 국방홍보원 회의실

구 분	선정 인원	상징 및 상금	상금
대상	1명	국방부장관상	150만원
최우수상	1명	국방부장관상	100만원
특별상 (최우수)	1명	김작진 장군 기념사업회장상	100만원
우수상	2명	국방홍보원장상	각 70만원
장려상	3명	국방홍보원장상	각 30만원

문의 백야 김작진 장군 기념사업회 ☎ 02-780-8877    디지털국방일보팀 ☎ 02-2079-3712